

행복한 책 읽기

정호승 '울지 말고 꽃을 보라'
(해냄 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글은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정호승 시인의 인생동화 ‘울지 말고 꽃을 보라’에 나온 저자의 친필이다. 모두가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랑이라는 따뜻한 주제로 지친 인생을 다독이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처럼 위대한 가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은 102편의 우화와 동화가 들어있다. 짧은 이야기 속에 사랑과 지혜는 물론 사유할 거리들이 짙다. 한 챕터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랑의 관점이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읽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특히 고슴도치의 첫사랑 이야기는 가슴을 울린다. 고슴도치는 다람쥐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고백했다. 하지만 다람쥐는 고슴도치의 가시 때문에 싫다고 했다. 고슴도치는 바위 모서리에 몸을 비비가면서 가시털을 없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람쥐는 야속하게 들쥐에게 가버렸다.



따뜻한 사랑

다시 몸 속에서 가시털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고슴도치는 모른다. 고슴도치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본질에서 잠깐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변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지키고 모습 자체를 사랑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다.

또 발레리나를 꿈꾸는 소녀가 있다. 소녀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어릴 적부터 열심히 연습을 했다. 남들보다 연습을 두 배로 하다 보니 발목에 관절이 왔다. 더 이상 발레를 못하게 되자 소녀는 절망을 했다. ‘울지 말고 이 꽃을 보라. 그리고 저 바위도. 산다는 것에 의미 따위는 소용없어. 장미는 장미답게 피려고 하고, 바위는 언제까지나 바위답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지 않니. 그저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제일이야. 그러다 보면 자연히 삶의 보람도 기쁨도 느끼게 되는 거야. 너무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어. 이제 또 다른 꿈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때 한 소녀를 구한 여교사의 말이다. 가슴 몽글한 구절이다. 이 외에도 사랑으로 이루어진 소재가 거만이다. 정 시인은 사랑을 통해 삶의 지혜와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괴테는 ‘문학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감동을 통해서 변화시킬 뿐이다’라고 말했다. 가슴은 어른들도 동화를 읽을 필요가 있다. 순수동심으로 돌아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잃은 것과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 감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돈이면 다 되고 못할 게 없는 세상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작금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의 비통함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절망은 또 다른 기적을 낳는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울지 말고 꽃을 보자, 그러면 분명히 빛이 보이고 희망이 생길 것이다.



안영옥 1999년 광주일보 신문에 동화 당선

종이로 만들었대요

광주여성재단, 전시회 ... 내일 페이퍼 토이 무료체험



종이로 만드는 장난감.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은 재단 8층 북카페에서 지역 여성 작가들의 솜씨를 만날 수 있는 제4차 작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DNA 페이퍼토이’. 종이로 만든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전시로 안지은 DNA디자인 대표의 작품이다. 전시회는 24일부터 1개월간 열리며 24일 오후 2시에는 북카페에서 직접 페이퍼 토이를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한다. 문의 062-670-0534. 홈페이지 www.gjwf.or.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눈여겨 봅시다 ... 문화·예술 미래 주역들

제59회 호남예술제 오늘 개막

무용·국악·음악·미술 등 내달 29일까지

미취학 아동 ‘새싹 그리기’ 6월 10일부터

예술 꿈나무들의 큰 잔치 ‘호남예술제’가 내년이면 꼭 60살이 된다.

광주일보사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창간 3년 후인 1955년 개최하기 시작한 호남예술제는 지금까지 57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으로 자리 잡았다.

제59회 호남예술제가 23일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리는 무용(발레·현대무용) 부문 경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오는 5월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경연은 무용, 음악, 국악, 미술, 작문 등과 함께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실용음악, 만화·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미술, 작문, 만화·일러스트 부문의 경우 초등부는 5월 28일 광주패밀리랜드에서, 중·고등부는 29일 우치동물원에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다.

또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새싹 그리기 축제’ 공모는 오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각 분야별 최고상 수상자 가운데서 국회의원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도 수여한다.

호남예술제를 통해 꿈을 키웠던 참가자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 중이다.

무향(舞鄕)의 명성을 이어가는 광주 무용계를 탄탄하게 하는 데도 호남예술제 출신들의 역할이 컸다.

박준희·임지형·김미숙 교수 등 조선대

무용과를 이끌고 있는 3명의 교수가 모두 호남예술제 출신이며 광주여대의 박경숙·박선옥 교수, 유에신·정혜경(송원대 교수)씨 등 전 광주무용협회장, 이영애·김유미씨 등 전 광주시립무용단장 등도 눈에 띈다.

그밖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김선희 교수를 비롯해, 서차영(세종대), 김화숙(원광대), 김화례(경희대), 신정희(경성대) 교수 등이 전국 무용과에서 활동중이다.

클래식 분야에서도 호남예술제 출신들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한국예술종합학교)씨를 비롯해 김혜경·서영화(조선대), 소프라노 박미애(광주대), 강숙자·정애련(전남대), 조수현(광신대)씨 등은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도 눈에 띈다. 지난해 광주 애육원에서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인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씨,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수석입학하고 최근 열린 다마카쓰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문지영, 독일 카이저스라우텐 오페라 주립극장 주역 가수로 활동중이며 올해 국립오페라단 ‘오텔로’에도 출연하는 테너 김기찬, 올해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합격한 남린양 등이 눈에 띈다.

한편 이번 경연 부문별 입상자는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홈페이지(art.kjmedia.co.kr)와 다음날 광주일보 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재밌어졌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화를 오페라로 만난다.

광주아트홀 기하공연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이 23~25일, 29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그림 형제의 원작을 아델 하이드 베티가 각색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엘엘베르트 홈퍼딩크가 작곡했다.

헨젤과 그레텔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무서운 마녀의 과자집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기존 오페라의 지루한 요소를 각색, 재미있는 코믹연기와 발레, 노래와 춤, 화려한 조명과 세트, 소품 등이 어우러져 재미있는 오페라로 재탄생했다. 공연 시간은 1시간으로 장면이 바뀔 때마다 해설자가 다음 장면을 이야기로 들려준다.

지휘와 연출은 한소리회 총감독인 박미애 교수가, 반주는 천현주, 장희경, 이유정씨가 맡았다. 안무는 박경숙 광주여대교수다. 그레텔 역은 강승희·임영란, 헨젤 역은 장희정·윤희정씨가 맡았으며 유형민·장은영·최수영씨 등이 출연한다. 발레리나 김승우·김슬기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의 062-227-7440.

광주아트홀, 23~25일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려함 속 경쾌한 움직임

‘가볍고 화려한 이미지들의 어울림.’

섬유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갤러리 리체 이양숙 관장이 오는 30일까지 갤러리 리체에서 ‘제이스·리-Smile’을 주제로 다섯 번째 개인전을 연다. 광주에서는 첫 개인전이다.

이 관장은 한지를 반죽해 종이판을 만든 뒤, 조각도나 칼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아크릴 물감을 채색하는 기법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품 이미지들은 마치 흥에 겨워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각각의 상징들은 작가가 본인의 상상력을 의인화하는 등의 기법을 사용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이미지들은 화려한 색감으로 즐거움(樂), 편안함(安), 한가로움(閑) 그리고 쉼(休) 등을 선불한다.

한편 이 관장은 제이스·리 아트상품 개발, 광주미술협동조합 이사장, 빛고을공예창작촌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412-000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우리는 II’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북고당 한약방** **광송간도로** 세우리병원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